

## 대시(dash)와 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김도훈  
(부산외국어대)

### 1. 서론

한글을 문자 체계로 사용하는 우리에게서 영어 문장부호가 그리 친숙하지 않다. 영어로 글을 쓸 때도 대체로 문장부호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영어 문장부호를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를 두고 종종 고민하게 된다. 한만열(2000)에 따르면 영어 등의 서구어 문장부호가 우리말에 그대로 전이되기 힘들다는 인식 및 이해가 우리에게서 부족하며, 이로 인해 문장부호의 오역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194-195). 이를 고려한다면 영어 문장부호, 특히 한국어 문장부호와 차이가 큰 영어 문장부호들을 어떻게 한국어로 옮길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 및 한국어 문장부호에 대한 분석 및 비교에 기초해 영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2-A00287)

어 문장부호 ‘대시’와 번역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어 문장부호 ‘대시’와 한국어 문장부호 ‘줄표’의 기능 및 용법, 그리고 이들 부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2] ‘대시’의 영한 번역 전략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의 경우, 영어 문장부호 ‘대시’와 한국어 문장부호 ‘줄표’의 기능 및 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에 관한 것이다. 영어의 경우 <한글 맞춤법>과 같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다양한 이론서 및 스타일 가이드를 해석의 틀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예문을 실제 텍스트 중에서 선별해 문장부호의 기능을 분석하고 용례를 파악하기로 한다. 한국어 문장부호의 경우 <한글 맞춤법> 부록에 나오는 문장부호 규정을 따르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예문을 선별해 제시하도록 한다. 이어 ‘대시’와 ‘줄표’의 비교를 통해 언어 체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번역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연구 문제 [2]의 경우, 어떻게 하면 영어 ‘대시’를 한국어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문제다. 연구 문제 [1]의 기능에 해당하는 출발어 텍스트 예문에 대한 번역 예문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실제 번역에서 발견된 문장부호의 번역 중 출발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대시’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도착어 규범에 맞는 번역 전략을 분류하고자 한다.

## 2. ‘대시’(–)의 기능 및 용법

문장부호 ‘대시’는 중세 영어 동사 ‘dasshen’에서 유래했으며 ‘충돌하다’, ‘돌진하다’, ‘때려 부수다’ 등을 뜻한다. 따라서 효과 측면에서 매우 극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하다. Merriam-Webster(2001)에 따르면 ‘대시’는 콜론과 콤마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데, 콤마처럼 삽입된 내용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콜론처럼 앞 문장에 대한 보충 및 부연설명을 할 때도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기능은 같지만 ‘대시’가 상대적으로 덜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준다(24). ‘대

시'의 여러 기능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자.

## 2.1. 급격한 단절 및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기능

Merriam-Webster(2001)에 따르면 '대시'는 생각의 흐름이나 문장 구조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할 때, 혹은 단절이 있을 때 사용된다(43). Allen(2002)은 주로 작가의 방백에 의해 단절이 발생할 때 두 개의 '대시'를 사용해 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원래 문장의 일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70).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1) 급격한 단절 및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대시'의 예시

- a) "Oh, we'll let them keep his name. Even a prince"—this in her most Terabithian voice—"even a prince may be a fool." (Paterson 1997: 79)
- b) When his mother or father walked into his room—which wasn't often—the octopus swung back and forth a little in the draught. (Fox 1966: 8)
- c) There were no building, no gasoline stations, no signs—only green hills and trees and birds sitting on telephone wires. (Fox 1966: 56)
- d) Yes, he had smelt such flowers, and seen such streams, and wandered on such shores, in—when was it?—oh, in his very earliest childhood. (Farjeon 1955: 113)

(1a)의 경우, 인용문에 'this in her most Terabithian voice(레슬리는 테라비시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작가의 말을 '대시'를 이용해 문장 중간에 삽입했다. 구조 및 내용 흐름상 단절이 일어나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b)의 'which wasn't often(이따금)' 역시 '대시'를 사용해 중간에 삽입했는데, 전체 문장의 흐름과는 내용상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처럼 흐름상 큰 관계가 없는 문장을 삽입하고 싶을 때 '대시'를 사용할 수 있다. (1c)는 '대시' 앞의 문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 즉, 'no building, no gasoline stations, no signs(건물도 주유소도 표지판도)'와 이와 반대로 '보이는 것', 즉, 'green hills and trees and birds(푸른 산과 나무와 새들)'를 '대시'를 이용해 나타내고 있다. (1d)는 임금님이 꽃향기를 맡고 개울과 바닷가를 거닐면서 문득 언젠가 와본 적이 있는 곳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문장 중간에 '대시'를 이용해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시’는 작가의 말을 첨가하거나 문장 흐름상 그다지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을 문장 중간에 삽입하고 싶을 때, 흐름의 변화를 나타낼 때, 혹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표현할 때, 즉, 단절 및 급격한 변화를 드러낼 경우 사용된다.

## 2.2.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

Shaw(1992)에 따르면 ‘대시’는 콜론이나 세미콜론과 마찬가지로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하나 그 효과 면에서는 보다 극적이다(88). 세미콜론 역시 보충 및 부연설명을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차이점은 세미콜론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독립 절을 분리하지만 ‘대시’는 뒤에 반드시 절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며 논의를 진행하자.

(2)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하는 ‘대시’의 예시

- a) But one day—April the twenty-second, a drizzly Monday, it had been—he ran ahead of them all, the red mud slouching up through the holes in the bottom of his sneakers. (Paterson 1997: 44)
- b) And she was wearing such beautiful things—a dress like pink rose-petals and silver frost, and round her head a sort of rainbow seemed to float. (Farjeon 1955: 114)

(2a)의 경우 ‘one day(어느 날)’에 대해 두 개의 ‘대시’ 사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b)에서는 ‘she was wearing such beautiful things(셀리나는 아름답게 차려 입고 있었다)’라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어떤 장식을 하고 있는지 ‘대시’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대시’는 콜론이나 세미콜론과 마찬가지로 보충 및 부연설명을 할 때 사용된다.

분리의 효과가 콤마보다 더 큰 경우, 또는 콤마보다 문장구조의 명확성을 더 높이고 싶을 때는 종종 ‘for example(예를 들어)’, ‘in other words(다시 말해)’, ‘namely(즉)’ 등과 함께 사용된다(Merriam-Webster 2001: 26; Shaw 1993: 88).

## 2.3. 동격 및 강조의 기능

‘대시’는 작가가 문장 내에서 강조하는 바를 부각시키거나 동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Alward와 Alward(1997)에 따르면 ‘대시’는 강조 효과를 극대화한다(87). 아래를 살펴보자.

(3) 동격 및 강조 기능을 하는 ‘대시’의 예시

- a) And of the two, only one is alive—I, Ramon Salazar. (O'Dell 1967: 1)
- b) He had to be the fastest—not one of the fastest or next to the fastest, but the fastest. (Paterson 1997: 2)
- c) We all have the same beginning—birth—and we all have the same end—death. (Albom 1997: 157)

(3a)의 경우 두 명 중 살아있는 ‘only one(단 한 사람)’이 라몬 자신임을, (3b)의 경우 ‘the fastest(가장 빠른 아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을 ‘대시’를 이용해 나타냄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유발시킨다. (3c) 역시 ‘대시’를 이용해 ‘the same beginning(똑같은 시작)’과 ‘the same end(똑같은 끝)’가 각각 ‘birth(출생)’와 ‘death(사망)’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강조의 효과를 창출한다.

## 2.4. 요약의 기능

‘대시’는 ‘대시’ 앞 문장에서 장황한 설명이나 열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요약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Shaw(1993)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콜론이 사용될 수도 있으나 그 강도 및 효과는 콜론보다 ‘대시’가 더 크다(97). 다음을 살펴보자.

(4) 요약의 기능을 하는 ‘대시’의 예시

- a) Several of Morrie's friends and family members had gathered to meet Koppel, and when the famous man entered the house, they buzzed with excitement—all except Morrie, who wheeled himself forward, raised his eyebrows, and interrupted the clamor with high, singsong voice. (Albom 1997: 19)

미국의 유명 앵커인 코펠이 모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다는 내용이 ‘대시’ 앞 문장에 표현되어 있으며, ‘대시’ 다음에는 모리만 제외

하고 모두 그랬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정리하고 있다. 다만, 필자가 분류한 기능들이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요약이나 정리는 물론 대조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2.5. 예시 및 열거의 기능

‘대시’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할 때 사용된다. 아래를 살펴보자.

(5) 예시 및 열거의 기능을 하는 ‘대시’의 예시

- a) The boat was smaller than mine and as we overtook it I saw that it was filled with provisions for a voyage—food, a jug of water, a fishing line and hooks, and an iron harpoon, among other things. (O’Dell 1967: 76)
- b) When they’d catch him scribbling, they’d screech about waste—wasted time, wasted paper, wasted ability. (Paterson 1997: 14)
- c) Jacob was seven, but he looked bigger than Maurice. It was because he was wearing so many clothes—scarves, mittens, sweaters, two hats, and several pairs of socks. (Fox 1966: 17)

(5a)에서는 ‘provisions for a voyage(장거리 항해를 위한 준비물)’의 구체적인 항목인 낚시줄, 낚시 바늘, 작살 등이 ‘대시’ 다음에 열거되어 있다. (5b)에 서는 아이가 깨작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waste(낭비)’라며 꾸중한다는 내용인데 ‘대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간, 종이, 재능의 낭비라고 열거하고 있다. (5c)의 경우 제이콥이 몸에 이것저것 걸치고 있었다는 내용이 ‘대시’ 앞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었는가를 ‘대시’ 다음에 나열하고 있다.

## 2.6. 단어 생략 및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

‘대시’는 종종 단어를 생략하거나 문장을 끝내지 않고 마무리할 때 사용될 수 있다. Shaw(1993)에 따르면 이 기능은 주로 대화체에서 사용된다(97). 아래를 살펴보자.

(6) 단어 생략 및 문장 미완성을 표시하는 ‘대시’의 예시

- a) “What are they teaching in that damn school?” he had asked. “Bunch of old ladies turning my only son into some kind of a –” (Paterson 1997: 14)  
 b) The Consequence was – (Farjeon 1955: 11)

예시 (6a)에서는 ‘Bunch of old ladies turning my only son into some kind of –(늙다리 여선생들이 남의 외아들을 대체 뭘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라는 문장에서 마지막에 단어를 생략했다. (6b)는 ‘The Consequence was –(결과 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라는 문장에서 마지막에 문장을 끝내지 않고 마무리했다. 이 경우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예시 (6a)와 (6b)에서 알 수 있듯, 문장이 ‘대시’로 끝날 경우 다른 문장부호는 생략하며(Shaw 1993: 97), 이와 같은 ‘대시’의 용법은 주로 직접화법, 특히 소설에서 빈번히 사용된다(Allen 2002: 70).

## 2.7.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림을 표시하는 기능

‘대시’는 연설문이나 대화체 문장에서 화자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릴 때 사용될 수 있다. 아래를 살펴보자.

(7)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림을 표시하는 ‘대시’의 예시

- a) “It—it—we—I never had such a student. In all my years of teaching. I shall always be grateful—” (Paterson 1997: 159)  
 b) But the King said, ‘Er—Selina—er—’ (Farjeon 1955: 11)

(7a)의 경우 선생님이 제자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t—it—we—I’에서 ‘대시’를 이용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7b)는 임금님이 셀리나에게 쑥스러운 질문을 하려는 참이다. 이러한 쑥스러움 때문에 말을 주춤하고 있으며 이를 ‘대시’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 3. ‘줄표’(-)의 기능 및 용법

<한글 맞춤법>에서는 ‘줄표’의 기능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줄표’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 또는 보충하는 말을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말을 정정하거나 변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줄표’는 크게 붙임표(-), 물결표(~)와 함께 한국어의 문장부호 이음표에 해당한다. ‘줄표’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정확히 규정된 바는 없고, 이승후(2003)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의 예시문과 교과서에서는 양쪽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문은 편집상의 이유로 ‘줄표’ 앞뒤를 모두 붙이고 있다(67-68). 한국어 문장부호의 경우 규정은 있지만 적절한 용례를 찾기 쉽지 않고 설명도 다소 부족해 이 논문에서는 실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용례를 선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용법을 기술하기로 한다.

#### 3.1.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

‘줄표’는 보충 및 부연설명을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와 마찬가지로 극적인 효과가 있어 소설 등에서 자주 사용한다. 아래를 살펴보자.

(8)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하는 ‘줄표’의 예시

- a) 오늘은 김 만필이 그의 울울던 1년 반 동안의 툼툼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며, 새로이 이 전문학교의 선생으로-시간 강사로나마-취임하는 날이며, 또 이도 또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학교 교련 선생과 함께 취임식의 단 위에 오르는 날이었다. (유진호 1973: 72)
- b) T교수는 학교 수첩-학생들이 엠마쪼라 부르는 것-을 꺼내 김 강사 앞에 놓고 연필 끝으로 죽 훑어 내려가다가 [...] (유진호 1973: 78)
- c) 사람으로서의 감정과 사랑과 양심을 잃지 않으려-그리고 밖으로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자의 입을 굽기지 않으려-휘발유 브러시 로울러는 연하여 고무판 위에 문질러지며 굴렀다. (김동인 1990c: 106)
- d)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 년 전쯤-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 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김동인 1990: 15)

상기 (8a)에서는 새로이 전문학교 선생으로 일한다는 데 대한 보충 및 부연



설명으로 ‘줄표’를 이용해 ‘시간강사’로 일한다는 것을 덧붙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8b)의 경우, 학교 수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학생들이 수첩을 ‘엠마쵸’로 부른다는 설명을 ‘줄표’ 사이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체언인 ‘학교 수첩’과 조사 ‘을’ 사이에 ‘줄표’가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독자가 ‘줄표’ 사이의 부가 설명을 뛰어넘지 않고 읽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을 경우 체언과 조사를 분리한 후 ‘줄표’를 넣을 수 있다. (8c)의 경우 앞뒤로 ‘줄표’를 사용하여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양심을 잃지 않는 것과 더불어 밖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8d)의 경우 ‘줄표’를 사용해 앞의 말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예시들과는 달리 ‘줄표’가 하나만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어 문장에서 ‘줄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민현식 2002: 68)도 있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줄표’가 두 개 사용된 예문만 제공하고 있어 (8d)의 경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용법에 적절하지 않은 용례로 분류하기로 한다. 단, 2002년 <문장부호 세칙안>은 이러한 용례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3.2. 정정 또는 변명의 기능

‘줄표’는 앞에서 한 말을 고쳐 적절한 표현이나 방식으로 정정해 다시 말하거나 앞에서 한 말에 대한 변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영어의 ‘대시’ 기능 중 급격한 단절 및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대시’와 기능 및 효과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줄표’의 경우 앞의 말에 대한 정정 또는 변명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아래를 살펴보자.

#### (9) 정정 또는 변명의 기능을 하는 ‘줄표’의 예시

- a)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 년이나 위로서 [...] (김동인 1982: 20)
- b) 과거나 현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문기자로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희극-아니 비극이었다. (이무영 1984: 127)
- c)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뭐 발광했던 말이 있었는데-” (김동인 1990a: 174)

(9a)의 경우 ‘출표’ 앞의 ‘새서방’을 ‘영감’으로 정정하고 있다. 새서방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해 영감으로 고쳐 말하고 있는 것이다. (9b)의 경우 신문기자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희극’이라고 말했다가 ‘출표’를 이용해 ‘비극’이라 정정하고 있다. 단, (9b)의 경우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문장부호 세칙안>도 이와 같은 용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9b)와 같이 ‘출표’ 하나만 사용되는 용례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9c)의 경우 ‘출표’를 사용해 변명하는 말을 제공하고 있다. 문맥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우선 ‘모릅니다’라고 툭 부러지게 답변을 했으나, 사실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기에 거짓 말을 한 것으로 오해를 살까 두려운 마음에 ‘뭐 발광했다는 말이 있었는데’라는 말을 던지시 하며 처음에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단, (9c)의 경우 ‘출표’를 두 개 사용했기 때문에 자칫 한국어 용법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글 맞춤법>은 이와 같은 용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의 문장 중간에 ‘출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출표’의 경우 용법에 있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4. ‘대시’(-)와 ‘출표’(-)의 비교 및 번역에의 시사점

‘대시’는 그 기능이 다양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문장 내 내용 및 구조의 단절 및 생각 흐름의 변화 표시, 보충 및 부연설명, 동격 및 강조, 요약, 예시 및 열거가 있으며, 이 외에도 단어를 생략하거나 문장을 마무리 하지 않고 끝낼 경우,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을 표시할 경우, 인용문에서 저자 이름을 표시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출표’의 기능은 두 가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출표’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 또는 보충하는 말을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말을 정정할 때와 변명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출표’의 기능 1은 영어 ‘대시’의 기능 2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영어 ‘대시’의 기능 3, 4, 5를 포괄한다. 단, ‘줄표’의 기능 2는 ‘대시’의 기능 1과 유사하지만 ‘줄표’의 경우 앞에 나온 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상의 제약이 있다. 또한 ‘줄표’의 경우 문장 중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두 개를 사용해야 한다.

표 1 ‘대시’와 ‘줄표’의 비교

|      | ‘대시’              | ‘줄표’      |
|------|-------------------|-----------|
| 기능 1 | 단절 및 흐름의 변화 표시    | 보충 및 부연설명 |
| 기능 2 | 보충 및 부연설명         | 정정 또는 변명  |
| 기능 3 | 동격 및 강조           |           |
| 기능 4 | 요약                |           |
| 기능 5 | 예시 및 열거           |           |
| 기능 6 | 단어 생략 및 문장 미완성 표시 |           |
| 기능 7 | 말더듬 내지 머뭇거림 표시    |           |
| 효과   | 극적 효과 창출          |           |

위의 비교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시’의 경우 ‘줄표’와 기능상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한 세부적인 면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 따라서 영한 번역 시 출발어 텍스트의 ‘대시’를 도착어 텍스트에서 같은 모양의 ‘줄표’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한 번역 시, 부사어(구)의 사용, 연결어미의 사용, 종결어미의 활용 등을 통한 번역을 시도하기 이전에 출발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대시’를 도착어 텍스트에서 ‘줄표’로 옮기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단, ‘줄표’는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 5. 영한 번역 시 ‘대시’(-)의 번역 전략

‘대시’와 ‘줄표’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영한 번역 시 영어 문장부호 ‘대시’를 옮길 때는 ‘줄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줄표’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한국어의 말줄임표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의 총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 5.1. ‘줄표’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앞의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시’와 ‘줄표’는 기능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단절 및 흐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시’는 도착어 텍스트에서 정정 또는 변명의 기능을 하는 ‘줄표’로 번역했을 때 기능적으로 등가를 이루며 도착어 용법에도 적절하다. 아래의 번역이 이에 해당한다.

(10) ‘줄표’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1

- a) But the fact is, that being, as I am, to inherit this estate after the death of your honoured father (who, however, may live many years longer) I could not satisfy myself without resolving to choose a wife from among his daughters, that the loss to them might be as little as possible, when the melancholy event takes place—which, however, as I have already said, may not be for several years. (Austen 2001: 73)
- b) 하지만 사실 나는 당신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물론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이 토지를 상속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님들 중에서 아내를 고르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몇 년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따님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스틴, 오화섭 역 2001/1995: 84-85)

상기 (10a)에서 사용된 ‘대시’는 단절 및 흐름의 변화를 나타낸다. ‘대시’ 앞에서는 ‘the melancholy event(불행한 일)’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반면, ‘대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대시’ 앞뒤에서 내용 흐름의 변화가 일어난다. 단절 및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대시’는 (10a)에서처럼 주로 전체 문장의 흐름과는 내용상 큰 상관관계가 없는 문장을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구조적으로나 내용 흐름상 단절이 일어나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의 번역인 (10b)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의

‘대시’를 정정 또는 변명 기능의 ‘줄표’로 모사하고 있는데 도착어 용법에도 적절하며 정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각 흐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시’와 기능상 등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상기 예시 (10a) 두 번째 줄에서의 괄호를 (10b) 첫 번째 줄에서는 ‘줄표’로 번역하고 있다. 괄호 안에는 보통 보충 및 부연설명 혹은 내용 정정 및 변명의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줄표’로 번역할 수 있다. (10a)의 경우 괄호는 정정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10b)에서 ‘줄표’로 처리한 것은 좋은 번역의 예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출발어의 ‘대시’ 역시 도착어에서 괄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을 하는 ‘대시’와 그 번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11) ‘줄표’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2

- a) I walked out the back way—just as Gatsby had when he had made his nervous circuit of the house half an hour before—and ran for a huge black knotted tree, whose massed leaves made a fabric against the rain. (Fitzgerald 2000: 95)
- b) 나는 밖으로 나가 뒷길로 갔고—개즈비가 삼십 분 전에 신경과민 상태로 집을 한 바퀴 돌았을 때와 마찬가지로—검은 마디가 울퉁불퉁 불거진 커다란 나무쪽으로 뛰어갔는데, 나무의 무성한 잎은 비를 피하게 하는 지붕 노릇을 해주었다. (피츠제럴드, 정현중 역 2000/2001: 127)

상기 예시 (11a)에서 사용된 ‘대시’는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한다. 전체적으로는 ‘나’의 행동을 중심으로 문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시’ 사이에 보충 및 부연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1b)의 경우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하는 ‘줄표’를 사용하고 있다. ‘줄표’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고 용법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대시’를 ‘줄표’로 옮겨 ‘대시’가 가져오는 기능과 효과를 살리는 방식으로 번역했다. 단, (11b)만 읽었을 경우, 보충 및 부연설명이 ‘ran for a huge black knotted tree(검은 마디가 울퉁불퉁 불거진 커다란 나무쪽으로 뛰어갔는데)’에 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I walked out the back way(나는 밖으로 나가 뒷길로 갔고)’를 보충하는 출발어 텍스트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줄표’ 안의 내용을 문장의 앞으로 옮기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에는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의 예시는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시’를 도착어 텍스트에서 ‘줄표’로 처리한 경우이다.

(12) ‘줄표’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3

- a) She had even condescended to advise him to marry as soon as he could provided he chose with discretion; and had once paid him a visit in his humble parsonage; where she had perfectly approved all the alterations he had been making, and had even vouchsafed to suggest some herself—some shelves in the closets up stairs. (Austen 2001: 46)
- b) 콜린스 씨가 신중하게 선택만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까지 해주었다. 그리고 한번은 조출한 목사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그가 해놓은 모든 개조를 매우 칭찬하면서 자기의 어떤 안을—이층 다락의 선반 건이었지만—제시하기도 했다. (오스틴, 오화섭 역 2001/1995: 79)

상기 예시 (12a)에서 사용된 ‘대시’는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을 수행한다. 즉, ‘대시’ 앞의 ‘some(일부)’의 내용을 ‘대시’ 다음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의 번역인 (12b)에서는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의 ‘줄표’로 모사해 나타내고 있다. 앞의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표’의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에는 ‘대시’의 보충 및 부연설명, 강조, 요약, 예시 및 열거 기능이 포괄돼 있으므로 상기 예시 (12b)의 경우 출발어 텍스트의 ‘대시’와 도착어 텍스트의 ‘줄표’의 기능이 등가를 이루고 있으며 도착어 용법에도 적절한 번역이다. 다만, ‘줄표’ 안의 내용 중 ‘~었지만’을 통해 불필요하게 대조의 느낌을 유발시킨 점은 아쉽다.

## 5.2.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출발어 텍스트의 ‘대시’를 도착어 용법에 적절하며 기능적으로도 등가를 이루도록 하는 번역 전략의 하나로 도착어 텍스트에서 접속사 혹은 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근희(2005)에 따르면, 출발어 텍스트의 ‘대시’를 도착어 텍스트에서 ‘줄표’를 사용해 번역할 경우 경우에 따라 글의 흐름이 끊기고 내용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장부호를 생략하고 자연스럽게 앞뒤 문맥을 이어서 번역하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63). 따라서 ‘대시’ 앞뒤를 별개

의 문장으로 처리하되, ‘대시’의 기능에 상응하는 접속사나 접속부사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도착어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 아래를 살펴보자.

(13)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1

- a) The woman said nothing either—until unexpectedly, after two highballs, she became cordial. (Fitzgerald 2000: 109)  
 b) 여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이볼 두 잔을 해치우더니 그녀는 예기치 않게 상냥해졌다. (피츠제럴드, 정현종 역 2000/2001: 148)

상기 예시 (13a)에서 사용된 ‘대시’는 생각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의 번역인 (13b)에서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누고 있으며 ‘대시’를 앞에서 말한 일이나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하는 ‘그러다가’라는 접속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도착어 용법에서 볼 때 적절하고 자연스러우며 출발어의 ‘대시’가 나타내는 극적 효과도 발휘하고 있으므로 (13b)는 도착어 용법에도 적합하면서 출발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장부호 ‘대시’의 기능과도 등가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4)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2

- a) She was received, however, very politely by them; and in their brother's manners there was something better than politeness; there was good humour and kindness—Mr. Darcy said very little, and Mr. Hurst nothing at all. (Austen 2001: 23)  
 b) 그러나 그들은 아주 공손히 그녀를 맞았다. 그 집 남자들의 태도에는 단순히 공손함뿐만 아니라 상냥함과 친절함도 배어 있었다. 그러나 다르시 씨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허스트 씨도 전혀 말이 없었다. (오스틴, 오화섭 역 2001/1995: 43)

상기 예시 (14a)에서 사용된 ‘대시’는 급격한 단절 및 생각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대시’ 앞부분은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며 ‘대시’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앞 내용과 반대되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들’인 다르시 씨와 허스트 씨에 관한 이야기로서 내용 흐름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이의 번역인 (14b)에서는 ‘대시’를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로 번역하면서 문장을 두 개로 분리했다. 내용 흐름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도착어 용법에도 적절하다.

아래에서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대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5)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3

- a) It could not be for society, as he frequently sat there ten minutes together without opening his lips; and when he did speak, it seemed the effect of necessity rather than of choice—a sacrifice to propriety, not a pleasure to himself. (Austen 2001: 120)
- b) 입도 떼지 않고 10분 동안이나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교제를 위해 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다 그가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은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말을 해야 할 필요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의상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다. (오스틴, 오화섭 역 2001/1995: 199)

예시 (15a)에서 사용된 ‘대시’는 ‘대시’ 앞부분에 대한 보충 및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즉, ‘대시’ 앞에 언급된 ‘the effect of necessity rather than of choice(마음이 내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해야 할 필요)’라는 말을 ‘대시’ 다음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다. (15b)에서는 (15a)의 ‘대시’ 앞뒤 부분을 두 문장으로 분리했으며 ‘다시 말하면’이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 앞 문장에 대한 보충 및 부연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16)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4

- a) It has often led him to be liberal and generous,—to give his money freely, to display hospitality, to assist his tenants, and relieve the poor. (Austen 2001: 56)
- b)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소작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었죠. (오스틴, 오화섭 역 2001/1995: 95)



(16a)에서 사용된 ‘대시’는 예시 및 열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시’ 앞에 언급된 ‘to be liberal and generous(인색하지 않고 너그럽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예를 ‘대시’ 다음에 차례로 나열하고 있다. (16b)에서는 ‘대시’ 앞과 뒤를 두 문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예시 및 열거 기능의 ‘대시’를 번역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이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예를 ‘~거나’와 ‘~고’라는 접속 조사를 사용해 나열함으로써 (16a)의 ‘대시’ 기능, 즉, 예시 및 열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상기 예시 (16a)의 ‘대시’와 이의 번역인 (16b)는 기능적으로 등가를 이루고 있다.

### 5.3. 한국어의 말줄임표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이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대시’ 기능 6의 단어 생략 및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을 번역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17) 한국어의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1

- a) “But I can assure the young ladies that I come prepared to admire them. At present I will not say more, but perhaps when we are better acquainted—” (Austen 2001: 45)
- b) “다만 젊은 따님들을 보고 싶어서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선 이 이상 말 씌드릴 수 없고 더 친해졌을 때에…….” (오스틴, 신현철 역 2001/2006: 86)

예시 (17a)에서 사용된 ‘대시’는 문장 끝에 사용되어 문장 미완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이의 번역인 (17b)에서도 미완성 문장으로 말을 줄였음을 표시하기 위해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착어 용법에 맞게 표기되어 있다.

참고로, 도착어 용법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대시’ 번역 중 상당수가 말더듬 내지 머뭇거림 표시 기능의 ‘대시’를 말줄임표가 아닌 ‘줄표’로 번역한 경우다. 한국어에는 현재 영어 ‘대시’ 기능 7의 말더듬 내지 머뭇거림 표시 기능을 하는 문장부호가 없다. 이 경우, 휴지를 나타내는 한국어 문장부호인 반점을 사용한다면 차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4.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이근희(2005: 63)는 영어 ‘대시’ 사이의 문장을 수식어구로 따로 분리해 전체 문장 속으로 삽입하는 번역 방법이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며 내용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아래를 살펴보자.

(18) 수식어(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1

- a) “When once I had pressed the frail shoulder, something new—a fresh sap and sense—stole into my frame. (Bronte 2000: 468)
- b) 한번 가냘픈 어깨를 짚었을 때 분명 뿔인가 새롭고 상쾌한 생기와 야릇한 감정이 나의 체내에 스며들어 왔소. (브론테, 김성구 역 2000/1989: 377)

상기 예시 (18a)에서 사용된 ‘대시’는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something new(무엇인가 새로운 것)’의 내용인 ‘a fresh sap and sense(새롭고 상쾌한 생기와 야릇한 감정)’를 ‘대시’ 다음에 나타내고 있다. 이의 번역인 (18b)에서는 (18a)의 ‘대시’ 앞뒤 부분을 연결해 번역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시’ 사이의 부분만 번역하지 않고 ‘분명 뿔인가’라는 말을 앞에 덧붙임으로써 ‘무엇’이 ‘새롭고 상쾌한 생기와 야릇한 감정’을 강조하며, 영어 ‘대시’의 효과를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아래를 살펴보자.

(19) 수식어(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2

- a) This was a demoniac laugh—low, suppressed, and deep—uttered, as it seemed, at the very key-hole of my chamber door. (Bronte 2000: 219)
- b) 악마의 웃음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나지막하고 숨죽인 듯한 굵직한 웃음소리로 내 침실 문의 열쇠구멍에서 나는 듯하였다. (브론테, 유종호 역 2000/2004: 270)

예시 (19a)의 경우, ‘demoniac(악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인 ‘low, suppressed, and deep(나지막하고 숨죽인, 그리고 굵직한)’을 ‘대시’ 사이에 열거함으로써 ‘대시’는 예시 및 열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번역인 (19b)에서는 (19a)의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나지막하고 숨죽인 듯한 굵직한’이 앞 문장에서 언급한 ‘악마의 웃음소리’를 묘사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웃음’과 ‘웃음소리’를 반복하여 덧붙이

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강조의 효과도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예시 (19b)는 (19a)의 ‘대시’와 기능적으로 등가를 이루고 있으며 도착어 용법에도 부합하다.

상기의 경우, 자칫 ‘대시’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극적 효과 및 강조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시 (18b)의 ‘분명’이나 ‘뿔인가’와 같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말을 덧붙인다든지, 혹은 예시 (19b)의 ‘웃음소리’와 같이 단어를 반복한다면 ‘대시’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강조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5.5.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이 전략은 ‘대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대시’ 앞 내용에 대한 보충 및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 ‘대시’ 앞뒤 문장을 독립된 별개의 두 문장으로 번역하고 뒤의 문장을 의존명사를 이용해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20)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대시’를 옮기는 번역 전략 1

- a) Neither of us had seen Strickland for two or three weeks—I had been busy with friends who were spending a little while in Paris, and Stroeve because, having quarrelled with him more violently than usual, he had made up his mind to have nothing more to do with him. (Maugham 1994: 97)
- b) 우리는 둘 다 스트릭랜드를 이삼 주일이나 보지 못했던 참이었다. 나는 그때 잠시 파리에 머물러 있던 친구들 때문에 바빴고,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와 여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 다툰 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모음, 송무 역 1994/2000: 122)

(20a)에서 사용된 ‘대시’는 ‘대시’ 앞부분에서 언급된 내용, 즉, 스트릭랜드를 이삼 주 동안 보지 못했던 이유를 ‘대시’ 다음에서 보충 및 부연하고 있다. 이의 번역인 (20b)에서는 ‘대시’ 앞뒤 내용을 따로 떼어 두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뒤의 문장을 ‘때문’이라는 의존명사를 사용해 종결함으로써 앞 문장에 대한 이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시’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 부연설명을 하는 경우 ‘대시’ 앞뒤 내용을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한 후 뒤의 문장을 ‘~때문이다’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앞 내용에 대한 보충

및 부연설명을 할 수 있다.

##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대시’와 ‘줄표’의 기능 및 용례 분석을 토대로 영한 번역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시’의 번역 전략을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영어 문장부호 ‘대시’의 기능과 용법을 살펴보았다. ‘대시’는 크게 단절 및 흐름의 변화, 보충설명, 동격 및 강조, 요약, 예시 및 열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실제 텍스트에서 발견된 예문에 기초해 용법을 기술하고 세부 용법 및 효과 측면을 다루려 했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문장부호 ‘줄표’의 구체적인 용례를 바탕으로 기능을 기술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과 정정 및 변명의 기능으로 분류한 후 실제 예문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상기 제2장 및 제3장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영-한 문장부호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기인한 번역예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대시’는 ‘줄표’와 기능 및 용법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영한 번역 시 ‘대시’를 ‘줄표’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문장부호에 대한 기능별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대시’의 번역 전략으로 ‘줄표’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한국어의 말줄임표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번역 전략의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한 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장부호 ‘대시’와 ‘줄표’의 기능 및 용법의 해석 기준을 확립하고 실제 예문에 기초해 영어와 한국어 문장부호에 대한 비교를 시도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필자의 논의가 기술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처방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법은 실무와 분리되어 실제 번역 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무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간과하는 이론은 번역의 다양한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Mossop 2005: 24)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다면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역시 번역 이론 및 번역 실무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문교부 (1988년 고시/1989년 시행) <한글 맞춤법>, 문교부 고시 제88-1호.
- 민현식 (2002) 「세칙안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문장 부호 세칙의 제정에 대하여—」, 『문장부호 세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58-71, 서울: 국립국어원.
- 이근희 (2005) 『영한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이승후 (2003) 『국어 문장부호 연구 - 현행 규정과 세칙안 검토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한만열 (2000) 「지역의 문제와 문장부호의 오용」,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 193-214.
- Allen, Robert (2002) *Punctuation*, Oxford: Oxford Press.
- Alward, Edgar, & Alward, Jean (1997) *Punctuation Plain and Simple*, New York: Thomson Learning.
- Merriam-Webster (2001) *Merriam-Webster's Guide to Punctuation and Style*, Springfield, MA: Author.
- Mossop, Brian (2005) What Practitioners can Bring to Theory?: The good and the bad. In. Jean Peeters (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lation Theory and Translation Practice* (pp. 23-29), New York: Peter Lang.
- Shaw, Harry (1993) *Punctuate It Right* (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 Terban, Marvin (2000) *Punctuation Power*, New York: Scholastic.
- Truss, Lynn (2003) *Eats, Shoots & Leaves: The Zero Tolerance Approach to Punctuation*, New York: Gotham Books.
- <문장부호의 기능 및 용법 제시에 사용된 문헌(제2장 및 제3장)>
- 김동인 (1982) 「감자」. 김우규(편저). 『한국의 명작단편<상>』(pp. 20-30), 서울: 산학사.
- 김동인 (1990a) 「광염 소나타」. 『감자』(pp. 172-196), 서울: 진화당.
- 김동인 (1990b) 「배따라기」. 『감자』(pp. 7-24), 서울: 진화당.
- 김동인 (1990c) 「배회」. 『감자』(pp. 105-140), 서울: 진화당.

- 유진호 (1987) 「김 강사와 T 교수」. 김성배(편저). 『소설문학71선 II』(pp. 71-93), 서울: 청림각.
- 이무영 (1984) 「제1과 제1장」. 김성배(편저). 『소설문학71선 II』(pp. 119-146), 서울: 청림출판.
- Albom, Mitch (1997) *Tuesday with Morrie*, New York: Anchor Books.
- Farjeon, Eleanor (1955) *The Little Bookroom*, New York: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 Fox, Paula (1966) *Maurice's Room*, New York: Aladdin Paperbacks.
- O'Dell, Scott (1967) *The Black Pearl*, New York: Yearling.
- Paterson, Katherine (1997) *Bridge to Terabithia*, New York: HarperCollins Children's Books.

<번역 전략 제시에 사용된 출발어 및 도착어 문헌(제5장)>

- Austen, Jane (2001) *Pride and Prejudice*, England: Norton & Company.
- 제인 오스틴 (2006) 『오만과 편견』(신현철 역.), 서울: 현대문화센타.
- 제인 오스틴 (1995) 『오만과 편견』(오화섭 역.), 경기: 범우사.
- Bronte, Charlotte (2000) *Jane Eyre*,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샬럿 브론테 (1989) 『제인에어』(김성구 역.), 서울: 청목사.
- 샬럿 브론테 (2004) 『제인에어』(유종호 역.), 서울: 민음사.
- Fitzgerald, Scott (2000) *The Great Gatsby*, London: Penguin Books.
- 스콧 피츠제럴드 (2001) 『위대한 개츠비』(정현중 역.), 서울: 문예출판사.
- Maugham, Somerset (1994) *The Moon and Sixpence*, Seoul: Dosol.
- 서머셋 모음 (2000) 『달과 6펜스』(송무 역.), 서울: 민음사.

[Abstract]

**Dash and Julpyo: Comparison and Strategies to Translate Dash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Kim, Do-Hu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purpor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functions of dash and julpyo (form-equivalent punctuation mark in Korean) and how do they differ? Second, what strategies can be used to translate dash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As for the first question, this paper illustrates how the punctuation marks take on the functional role as unique linguistic entities. Following the analysis, this research compares the two punctuation marks, so a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As for the second question, this paper classifies strategies to translate dash and discusses how such strategies can be deployed and what attentions should be paid. It is of notable interest that punctuation mark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ten invite ‘headaches’ and that the issue has been neglected in the academic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which calls for the need to address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 Key Words: dash, equivalence, julpyo, punctuation marks, translation strategy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kdh8377@pufs.ac.kr

관심분야: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